

2026 September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8월 동향

국내외 물가지표 시장 예상 부합과 중동 정세 민감도 완화 속 유가 하락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 하지만 중반 이후, 도비시 평가 한은 금리 결정에도 미 재정 불안 우려와 잭슨홀 미팅 위시 의장 매파 발언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 월 초, 국내 7월 소비자물가 지표의 시장 예상 하회와 따른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 요인 반영과 미 재무장관의 호르무즈 재개방 언급에 대한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감소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양상 출발

- 월 초, 7월 국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대비 2.8% 상승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 영향까지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출발
- 이어, 미 재무장관 베네통의 호르무즈 재개방 언급 등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감소한 영향 등도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내 레벨 부담에 따른 일부 되돌림과 국제유가 상승 전환 등의 압력이 금리 하단을 제한

■ 중반, 미 7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에도, 한은 매파 기조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 등이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내 국내 증시에서의 위험회피 심리와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소식 영향 등으로 하락 재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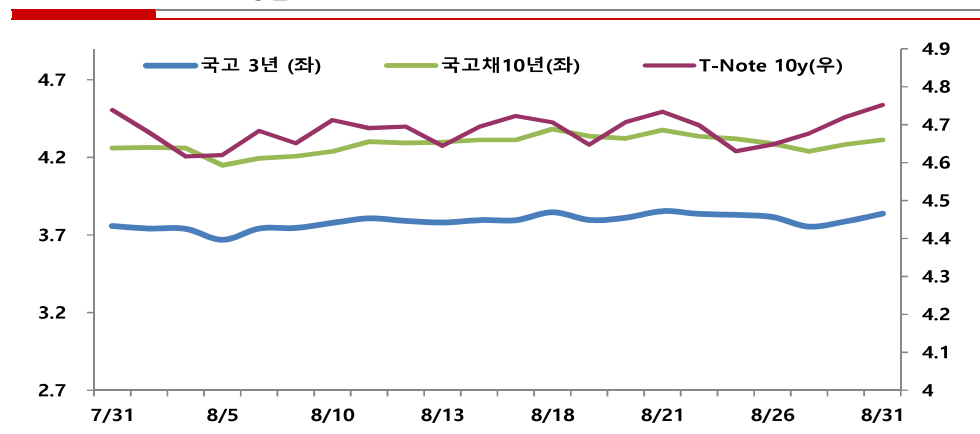
- 중반, 국내에 이온 미국에서의 7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 소식 등이 국내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심리를 자극. 하지만 한은의 매파적 기조 지속과 중동 불안정 지속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 미친 형국
-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의 위험회피 심리 강화가 국고채 시장에 전이되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 재정불안에 대한 금리 발작 상황에 따른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소식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리는 재차 소폭의 하락 추세로 전환

■ 후반,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 전환 영향이 국고채 금리에 반영된 흐름 나타낸 가운데, 한은 금통위의 전격 25bp 금리 인상에도 다소 도비시한 기조로 시장이 인식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지속한 양상. 하지만 주말간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기조를 재언급한 위시의 매파적 발언에 국내외 금리 상승 전환하며 마감

- 후반, 중동에서의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며 유가 하락 영향이 국내외 금리에 반영된 가운데 하락 추세 지속
- 이어, 한은 금통위에서 전격적 백투백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지만, 다소 도비시했다는 시장 평가에 따라 국고채 금리 추세 유지에 영향. 하지만, 주말간 잭슨홀 미팅에서의 위시 의장 매파적 물가 대응 발언 등으로 국내외 금리 방향성이 재차 상승 전환으로 추세 전환한 가운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8월 평균
국고채(3년): 3.79%
T-Note(10년): 4.68



9 월 전망

잭슨홀 미팅의 워시 의장 물가 대응 매파적 발언 영향의 대외 요인 속 대내적 성장 모멘텀 강화되는 국면과 향후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도 다소 매파성 유지할 한은 정책 기조 등으로 국고채 금리 소폭 상승 흐름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62	3.65 ^(f)	3.6 ^(f)

■ 연준 주요 당국자들의 인플레이션 대응 언급에도 그간 다소 관망세를 보이던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의 물가 대응 언급이 매파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측면 등을 고려 시, 실제 인상은 미 중간선거 이후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금리에 대해 선제적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등 정세 불안정성 지속 등에 따른 유가 등락 영향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지속에도 그간 도비시 기조를 보여온 워시 의장의 금리 인상 결정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그간 전망
- 하지만, 금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이종책무 중 고용대비 물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이 확인. 이에 따라 연내 1회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점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속, 상기 11월 이후 가능성이 다소 높지만, 시장에서의 선제 반영 흐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등 주요국가 재정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시장 우려가 다소 가시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중등 지정학적 요인의 민감도 하락에 따른 유가 하락 추세 속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요인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 중앙은행 정책들이 다소 매파적인 가운데 여기에 미 재정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우려가 상존한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내재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 하지만, 최근 중등 전쟁의 지정학적 민감도 하락에 따른 유가의 점진적 하락 추세 및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워시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가능성 등의 요인이 금리 상승 압력을 제어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한은의 2회 연속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 대응 인상 결정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여기에 성장, 수출 등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 강화가 지속하는 양상 속, 지난 금통위에서 총재의 펀더멘털 대비 환율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매파적 회견 등을 고려 시, 적어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에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한은 금통위의 2회 연속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 대응 인상 결정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성장, 수출 등 경제 모멘텀 강화가 지속하는 점 등이 대외적 유가 요인과 함께 물가 증시 대응에 다소 정책적 여력을 집중시킬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현재 크게 낮아진 환율 수준에도 한은 총재의 펀더멘털 대비 여전히 다소 높다는 인식 등의 고려와 함께, 동 내용의 반영이 내외금리차의 추가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측면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9월 전망
3.75%-3.90%

상승요인	하락요인
· 잭슨홀 이후 워시 의장의 물가 대응 기조 전환 · 국내 경제 모멘텀 여건 및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기조에 있는 환율 수준을 고려한 한은 매파 성향	· 미 중간 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금리인하 압박 · 대내외 물가 상승세 다소 시장 예상 부합 양상

달러/원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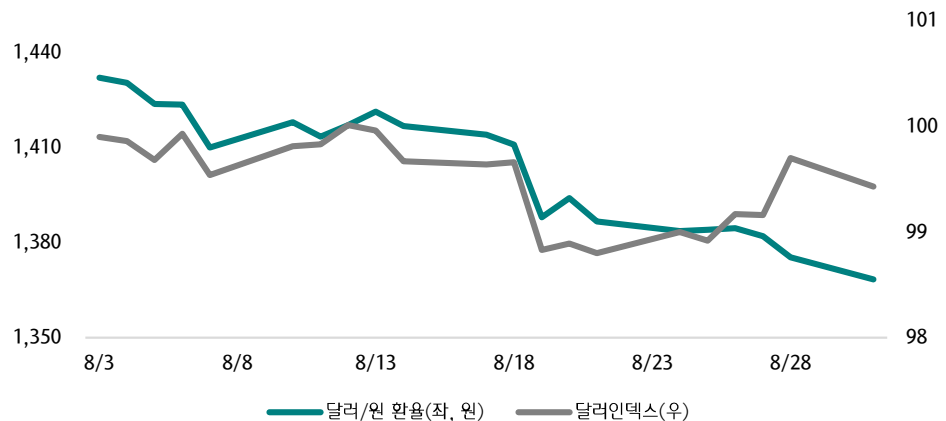
8 월 동향

연준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미 재정 불안 등에 글로벌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내외 금리차 축소 및 경제 펀더멘털 개선, 매도 우위 수급 여건에 힘입어 원화 강세 흐름이 탄력을 받으며 1,360원대까지 급락세 시현

- 월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위험회피 심리가 유입되었으나, 엔화 가치 반등과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등 수급 영향이 더해지면서 환율은 1,410원대로 하락
 - 8월 들어,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미-일 당국의 엔화 매수 공조 개입에 따른 엔화 강세와 미 재무장관의 원화 변동성 지적 발언,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수출업체 달러 매도세 등에 힘입어 환율은 하락 출발
 - 이후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기록하며 연준 긴축 기대가 크게 약화, 이로 인한 글로벌 약달러 흐름 속에 1,410원선 하회했으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유입되면서 1,410원대 등락
- 월 중반,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 둔화와 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달러 약세 나타난 가운데, 수출업체 매도물량과 역외 매도세 등 우호적 수급 여건이 더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400원선을 하회
 - 중반 들어, 미국 7월 CPI에 이어 PPI까지 둔화세를 보이며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경계감이 일부 완화되고,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면서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수급상 저가 매수세가 더해지며 환율은 1,410원선을 유지
 - 이후 미국 재정적자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위험회피 분위기가 짙어졌으나,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임. 여기에 역내외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환율은 1,400원을 하향 돌파
- 후반,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 긴축 경계감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으나, 금통위의 연속 금리 인상과 성장 개선 전망, 매도 우위 수급 등 원화 강세 요인이 맞물려 1,360원대까지 하락해 마감
 - 후반, 국내 반도체 기업 관련 물량 등 매도 우위 수급 여건 지속되며 1,370원대까지 추가 하락했으나, 미국의 캐나다 관세 인상과 대이란 경제 제재 예고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끈적한 미 PCE물가에 따른 연준 긴축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소폭 반등
 - 이후,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호키시 평가로 글로벌 달러 강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의 연속 금리 인상과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수출업체 매도물량 지속 유입 등 우호적 수급 여건이 맞물려 원화 강세 흐름 속 1,360원대 후반까지 하락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403.8
8월말 달러/원 환율
: 1,368.0



9 월 전망

연준의 매파적 기초 속에도 금리 동결 기대가 공존하여 달러 강세 압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 여건이 지속되면서 환율의 완만한 하락세 예상.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어 추가 하락 폭은 다소 제한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501	1,385 ^(F)	1,360 ^(F)

* 3 분기 평균은 최근 환율 하락 추세를 고려, 8 월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여 산출

- 연준 위원들의 물가 대응 기초에 워시 의장도 매파적 발언으로 힘을 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과 중동발 유가 상승 영향 제한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세 둔화 가능성 등 동결 명분도 상존해 당분간 달러 변동성 지속될 전망
 - 잭슨홀 기초연설에서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는 등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부각된 가운데 기준 근거로 제시한 PCE물가 3%대 지속, 이에 9월 FOMC 앞두고 긴축 경계감 지속될 측면은 강달러 지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 중간선거 다가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속 워시 의장의 행보가 실제 긴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인식도 상존. 또한, 중동 전쟁 민감도 완화에 따른 유가 안정화 등에 9월 회의 전 발표될 미 8월 CPI 둔화될 경우, 시장의 동결 기대 재차 강화되며 달러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임
- 주요국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재차 불거질 경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 확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동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저하되었으나 잠재 불안 요인으로 환율 하단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채금리 불안 문제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될 경우 원화 환율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한편,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발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낮아져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당분간 환율 낙폭을 다소 제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은의 선제적 매파 기초와 견조한 국내 경제 성장 모멘텀이 원화 강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 등에 힘입어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열려 있으나, 그 속도와 폭은 이전보다는 다소 완만할 전망
 - 금통위 연속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와 성장을 전망치 상향 조정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 강세 지지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3개월 연속 수출 900억 달러 상회 등 반도체 수출 증가세로 달러 공급 지속 기대감까지 더해져 환율 하락세에 무게 실릴 전망
 - 다만, 수급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 증시 자금 유입 영향 축소 가능성과 저가 매수세 등은 상방 요인으로 예상되나, 환율 추가 하락을 예상해 그간 미뤄왔던 수출업체 매도물량이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상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9월 달러/원 환율
1,360~1,385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의 매파적 기초와 긴축 경계감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 주요국 국채금리 불안 속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 한은의 매파적 기초와 한-미 금리차 축소 - 국내 경제 성장 모멘텀 강화 - 연준 금리인하 기대 공존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화 전망

최근 물가 상승 추세에 따른 BOJ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에도 정부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의 대내 요인과 대외적 위기 의장 잭슨홀 매파 언급 이후 달러의 상대적 엔화 대비 강세 요인 등으로 점진적 엔화 약세 나타날 전망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8.8
8월 엔/원 평균환율
: 881.8

■ **(엔화 동향)** 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개입 여파가 이어지며 엔화는 155엔대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해지며 다시 159엔대로 반등. 중반, 미국 고용 부진과 물가 둔화세로 인해 연준 긴축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와 유가 불안 등에 159엔대에서 좁은 폭으로 등락. 후반, BOJ 부총재가 추가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물가 안정 기조를 강조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로 인해 엔화 약세 폭 확대되며 160엔선 터치 후 마감

9월 엔/원 예상범위
: 845-860원

■ **(엔화 전망)** 일본내 물가 수준이 2% 수준 아래이나 상승 탄력에 따라 BOJ 금리인상 시기 저율질 등이 엔화 강세 지지할 요인. 미 재무장관의 엔화 강세 유지 바람직 관련 정책 등도 엔화 강세 지지할 요인. 하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의 정부 요인과, 잭슨홀 미팅 위기 매파적 발언을 고려한 연준 정책 등이 엔화 대비 상대적 달러 강세 견인 속 점진적 엔화 약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 2% 아래 머물고 있는 물가 수준이나 여전히 BOJ는 기대인플레이 상승 가능성과 최근 상승 탄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이 엔화 강세 지지 요인. 여기에 미 재무장관의 엔화 강세 유도 정책 지속도 강세 탄력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요인과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위시의장의 물가 대응 매파 정책 시사 등의 요인이 엔화 대비 상대적 달러 강세 견인하며 점진적 161엔대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

유로화 전망

유로존 3분기 성장세 호조 속 높은 물가 상승 추세 전환에 따른 ECB의 금리 인상 전환 가능성이 유로 강세 견인 요인이나, 위기 의장의 물가 대응 매파 기조 영향에 따른 상대적 달러 강세 우위 전망으로 소폭 약세 흐름 예상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89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624.3

■ **(유로화 동향)** 미국의 이란 공격 위협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 언급 등 혼재된 재료 속에서 유로화는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1.15달러대에서 등락. 중반 들어, 미 고용 및 물가 데이터가 둔화되면서 연준 금리동결 기대가 커졌고, 여기에 미 재정불안 이슈까지 겹치자 달러 대비 크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1.17달러대까지 상승. 후반 들어, ECB 관계자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위기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연준 긴축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로 전환,

9월 유로/원 예상범위
: 1,570~1,595원

■ **(유로화 전망)** 6월 이후 중단된 ECB 금리인상이 3분기 성장세 호조 등으로 9월 재차 시동 걸 수 있는 측면이 엔화 강세 지지 요인. 하지만 최근 위기 의장의 매파적 물가 대응 언급 등에 따른 달러의 유로 대비 상대적 강세의 대외 요인 등으로 유로화 점진적 약세 흐름 예상
· 대내적 3분기 성장 호조 확인 등에 따라 6월 이후 중단된 금리인상 정책이 9월 재차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로 강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대외적 연준 잭슨홀 미팅에서 위시 의장의 물가 대응 매파 기조 언급에 따른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상대적 달러 강세 흐름 보이며 유로화는 소폭 약세 방향성 속에 1.165달러 전후 흐름 나타낼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OPEC+ 일일 일일 18.8만 배럴 증산 국제석유류량증산(14단계→21단계) 한 8월 수출입(YoY +62.9%, +26.5%), 무역수지 S&P 글로벌 제조업 PMI(53.1) 미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7359K)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3.2) ISM 고수,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6.6) 중 8월 레이징북 제조업 PMI(50.9)	2 Bei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세미콘 타이완 2026(~4) :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 [지정] 미국 무역 데이터 발표 한 8월 CPI(MoM) +0.2%, YoY +2.8%) CPI 전년(YoY +2.6%) 미 8월 ADP취업자 변동(44K)	3 미 7월 수출입(MoM) -0.9%, -1.8%), 무역수지 8월 Challenger 해고지수(YoY -46.1%) S&P 글로벌 중앙, 서비스업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중 8월 레이징북 중앙 PMI(50.8) 레이징북 서비스업 PMI(50.4) 유 7월 PMI(MoM) -0.3%, YoY +4.6%) 8월 S&P 글로벌 중앙, 서비스업 PMI(F) 일 8월 S&P 글로벌 중앙, 서비스업 PMI(F)	4 미 고용보고서, 독일 IFA(~8) 독일 IFA(~8) : 세계 3대 IT 기업 전시회, 새기술 생태계 확장 주목 [음식료]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미 8월 비농업부문고용지수 연동(+23K) 미 8월 실업률(4.1%)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30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1%) 유 7월 소비탄력(MoM) -0.3%, YoY +0.7%) 한 8월 무역수지 8월, 경상수지(7월) 유로 소비탄력(YoY -0.7%),ECB Lane연설	5	
6	7 [휴일] 미국(군보자의 날) [지정] 글로벌테크노로지 수요예측(~11) 백에이트로브스 수요예측(~11) 유 9월 섹터 투자자기대치수(0.9) 2Q GDP(T)QoQ +0.4%, YoY +1.0%) 고용/1(QoQ) +0.1%, YoY +0.5%) 유 Standard Life -9.8 8월1차 유엔 총회(UNGA 81) 개막 제27차 세계지니포럼(~10)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박람회 MSPO(~11)	8 글로벌믹스 Communacopia & Technology(~11) : 마이크로칩과 CAPEX, 소프트웨어 수익성 집중 개최다, 미국산 700개 품목 15~50% 보복관세 한 2Q GDP(F)QoQ -0.6%, YoY +3.7%) 미 7월 소비자신용지수 8월 제1차 소비자물가지수(99.8) 뉴욕 연준 1년 기대인플레이션(3.63%) 중 8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23.9%, +27.5%) 일 8월 경기관측조사 연동(45.7) 2Q GDP(F)QoQ +0.3%, YoY +2.6%)	9 지준일 [재진]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지정] 나일스, 일리노이를 수요예측(~15) [IT] 8월 대한 수출 데이터 발표 미 8월 단기 에너지 전망(STEO) 국제 반도체 기업 및 첨단 제1차 산업(~11) [지정]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일 8월 실업률(2.9%) 중 8월 CPI(YoY +0.5%), PPI (YoY +3.5%) 일 8월 통화량 M2(YoY +2.2%)	10 선물유선 동시만기일, ECB 회의 11 한국 선물유선 동시만기일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안정)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25% 동결, 지난 6월 25bp 인상한 이후 동결, 경제안정 발표 주목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지정]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미 8월 PMI(MoM) +0.0%, YoY +4.7%) PPI 전년(MoM) +0.2%, YoY +4.2%) 기준주택매매(MoM) -1.7%)	11 미 CPI IEA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출 전망 [자동차] 중국 판매 데이터 발표 한 9월 1~10월 수출입(YoY +45.3%, +23.1%) 미 8월 CPI(MoM) -0.1%, YoY +3.4%) CPI 전년(MoM) +0.2%, YoY +2.5%) 9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인행(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8월 PMI(MoM) +0.1%, YoY -7.2%)	12	
13	14 애플리케이션 거래시간 연장 한국거래소, 국내주식 애플리케이션 거래시간 연장 : 애플리케이션 거래시간 오후 4시~8시로 연장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18종, 주식옵션 2종 추가상장 : 코스닥200-코스닥150 장기연동 결과 반영 세계 가스-에너지 전망(Gasview 2026) (~17) 모건스탠리 글로벌 일스케어 컨퍼런스(~16) 미국 시카고 국제 제조 기술 전시회(~19) 세계 우주 비즈니스 위크 2026(~17)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 박람회(~16) 일 7월 실업률 경공업생산(F)	15 미 FOMC(~16) 미국 FOMC 정책회의(~16)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0~3.75%로 동결, 전도부, 경제안정(SEP) 발표 주목 [재진]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한 7월 통화량 M2(MoM) -0.7%) 8월 수입물가(MoM) -1.0%, YoY +18.7%) 수출물가(MoM) +1.0%, YoY +49.1%) 미 9월 뉴욕 한파에너지서비스 제조업지수(20.6) 중 8월 기준주택가격, 신규주택가격, 경공업생산 실업률(5.2%), 소매판매(YoY +0.6%) 유 7월 무역수지 9월 ZEW 경기관측지수(31.4)	16 제1차 한중양자회담 정상회담(~17) 미 8월 수입물가(MoM) -0.4%, YoY +5.9%) 수출물가(MoM) -1.3%, YoY +8.2%) 소매판매(MoM) -0.6%) 근원 소비자물가(MoM) -0.3%) 9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0.5) NABH 주택시장지수(35) 미 9월 산업생산(MoM) +0.0%, YoY +0.1%) 일 8월 수출입(YoY +23.2%, +27.8%)	17 BOE, BOJ 통화정책회의(~18)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5년동 동결, 3명 인상 의견, 에너지 가격발 불가 압력 존재 BOJ 금융정책위원회(~18)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1.00%로 6개월 동결, 성장률 전망 상향, 금리 인상 가능성 주목 미 8월 주택착공지수, 건축여가(F) 미 8월 주택매매(MoM) -2.3%) 9월 달러화지수 연준 경기 전망 유 8월 CPI(F), CPI 전년(F)	18 미국 선물유선 동시만기일 러시아 총선(~20) 재정예산과 미적평가 제2 시행 한 8월 PPI(YoY +7.7%) 미 8월 경공업생산, 실업률 유 7월 건설 생산(MoM) -1.3%) 일 8월 전역 CPI, 국내 CPI	19	
20	21 [휴일] 일본(경로의 날) 베라미 코퍼아 2026 2026 유럽 동향서 발행되 ECOC(~23) 노르노르노스 캐피탈 마켓 데이(CMD 2026) 한 9월 1~20월 수출입(YoY +56.0%, +19.0%) 미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유 8월 -9.23 TSMC 베이 OP 애크시스트 프로그램	22 [휴일] 일본(국민의 휴일) 유엔총회 코퍼아 2026 2026 유럽 동향서 발행되 ECOC(~23) 노르노르노스 캐피탈 마켓 데이(CMD 2026) 한 9월 1~20월 수출입(YoY +56.0%, +19.0%) 미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유 8월 -9.23 TSMC 베이 OP 애크시스트 프로그램	23 마이크로닉 실적 발표 [휴일] 일본(추분) 베라미 코퍼아 2026(~24) : 세, 마이크로닉스, XCMR 중상 메타 기술 컨퍼런스 [재진]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한 9월 소비자신용지수 미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S&P 글로벌 중앙, 서비스업 PMI(F) 유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S&P 글로벌 중앙, 서비스업 PMI(F)	24 한국 유창(추석 연휴) [휴일] 한국(추석 연휴) 미 중 시장회동 : 세 기술 관련 및 무역 유창 연장, 안보 문제 등 논의 [재진] 미국 7년물 국채 입찰 2026 세계 일 동회(~26) 미 8월 산업주매매 9월 한미S(1) 제조업활동 일 9월 S&P 글로벌 중앙, 서비스 PMI(F) S&P 글로벌 제조업 PMI(F)	25 한국 유창(추석 연휴) [휴일] 한국(추석), 중국, 대만(중추절) 미 9월 미시각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인행(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한자시스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월동] 미 중 세 고위급 회담 : 세 중 협정 분야 기술 마련 관련 고위급 실무 회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세 R&D, K-문샷 프로젝트 중앙 로드맵 공개	26	
27	28 [휴일] 대만(교사의 날) R&A 통화정책회의(~29)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로 2연속 동결 코피아 프라미엄 위크(~10/16) : 국내계 연금(금)용 대상 코프사, 코스타, 에비 IPO 등 필라미 위 행사 진행 2026 유럽 S&O 연동제 박람회(~10/2) 미 9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중 8월 산업생산 일 8월 PPI 지수	29 오른서 테크데이 2026 : 오른서 개발자 컨퍼런스, 생 솔루션 CEO 기노트, 최신 세 모델, 에이전트 플랫폼, API 등 주목 코피아 불확정 위크(KBW 2026) (~10/1) 미국 현대계 통신 및 게이밍 박람회(~10/1) 싱가포르 테크노미트 및 세 월드 박람회(~30) 미 7월 소비자 신용지수 S&P 코퍼아 CS 20개 도시 8월 개인이치보고서 구입견수 9월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컨퍼런스도 소비자지수	30 미 FY2026 회계연도 마감 미국 FY2026 회계연도 마감일 : FY2027 예산안 처리 및 세안소 시장 [IT] DMM, NANO FLASH 계약자 발표 한 8월 경공업생산 미 8월 PCE, PCE 전년 개조도, 개인소비지수 2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지수 9월 MNA 시카고 PMI 중 9월 제조업, 비제조업, 중앙 PMI 일 8월 소비탄력, 경공업생산(F), 주택착공지수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